

# 인천시 모(母)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 The Profile of Child Care and the Policy Needs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in Incheon

하석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Seok Cheol Ha(skclha@ifwf.or.kr)

### 요약

본 연구는 인천의 아동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모(母)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욕구를 현재의 보육 환경 속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모(母)를 취업모와 미취업모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따른 아동 돌봄 시간과, 만족도 그리고 정책 욕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인천시 거주 여성(29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아동 돌봄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신체적 돌봄에서만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 욕구는 각 집단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 욕구 중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 욕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의 증가와 인천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 수준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인천시 | 아동 돌봄 | 모의 취업 여부 | 보육료 | 정책 욕구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ime spent,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 policy needs regarding child care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in Incheon. For this study, mothers with at least one child under the age of five were analyz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First, unemployed mothers spent more time for child care than employed mothers. Second, unemployed mothers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than employed mothers, but only in the domain of physical care. Finally, the policy needs among mothers differed by their employment status while the financial support need for using a child care facility was high for both groups. This may be due in part to the increased likelihood of sending their child to a facility as their child age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in Incheon.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eyword : | Incheon | Child Care | Mother's Employment Status | Child Care Cost | Policy Needs |

## I. 서론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와 역할 또한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의 확대가족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고,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수정확대가족이 새로운

접수일자 : 2018년 03월 22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4월 11일

교신저자 : 하석철, e-mail : skclha@ifwf.or.kr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가족 임금(family wage)의 붕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은 자의(自意)와 타의(他意)에 의해 증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는 부족한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불가피하게 돌봄의 공백(care deficit)을 야기하였다. 아동 돌봄 영역에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여전히 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경제활동 참여는 필연적으로 시간적·물리적 제약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이나 증가된 노동시간은 아동 돌봄 시간[1-5]과 보육서비스 이용 및 욕구[6]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책 인식 및 경험이 정책 만족도와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는 논의[7]는 직접적인 아동 돌봄이 어려운 취업모의 경우,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미취업모에 비해 더 많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욕구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본 연구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에 아동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미시적, 거시적 환경 속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은 인천시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가 최근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부담의 급간식비 지원과 유휴시설을 재활용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정책을 계획 및 시행[8]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수행은 먼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돌봄에 있어서 부모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모(母)의 취업 여부와 아동 돌봄 간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후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의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아동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현재 모(母)의 상황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 돌봄 현황

이하에서는 아동 돌봄 영역에서 부모와 보육시설의 비중을 이해하기 위해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돌봄의

주된 행위자를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하겠다. 특히, 돌봄의 유형을 단일한 돌봄 자원만을 활용하는 ‘단일 돌봄’과 다양한 돌봄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 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일 돌봄과 복합 돌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각 유형이 전체 아동 돌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전국 및 인천시 연도별 단일 돌봄 및 복합 돌봄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단일 돌봄	복합 돌봄	계
전국	2010년	2,091,048 (79.1)	551,796 (20.9)	2,642,844 (100.0)
	2015년	1,882,672 (70.1)	802,469 (29.9)	2,685,141 (100.0)
인천	2010년	118,288 (79.4)	30,631 (20.6)	148,919 (100.0)
	2015년	112,081 (69.8)	48,444 (30.2)	160,525 (100.0)

자료: 각 연도 인구총조사[9][10]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먼저, 2010년의 경우 전국 수준에서 단일 돌봄은 전체 아동 돌봄의 79.1%를 차지하였고, 복합 돌봄은 20.9%의 비율을 보인다. 2015년의 경우에는 단일 돌봄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여 70.1%의 비율을 보인 반면 복합 돌봄은 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29.9%의 비율을 나타냈다.

인천시의 경우도 전국 수준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단일 돌봄은 79.4%의 비율을 보이고 복합 돌봄은 20.6%의 비율을 나타낸다. 2015년의 경우에는 전국 수준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 비해 단일 돌봄의 비율이 감소하여 약 69.8%의 비율을 보이고 복합 돌봄의 경우에는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한 30.2%의 비율을 보인다.

#### 1.1 단일 돌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한 돌봄 제공자에 의해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일 돌봄을 돌봄 주체별로 구분하고 각 주체별 비율을 전국 수준과 인천시 수준에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전국 수준의 자료를 보면, 2010년의 경우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은 아동

의 비율이 48.5%로 나타나 단일 돌봄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이와 같은 비중은 2015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2015년의 단일 돌봄 중 부모의 비율이 48.3%를 차지해 다른 돌봄 제공자들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돌봄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39.5%와 42.4%를 보여 부모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역시 전국 수준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52.9%와 53.0%의 비율을 보여 돌봄 제공자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시설 역시 전국 수준과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35.7%와 38.2%의 비율을 보여 부모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2. 전국 및 인천시 연도별 단일 돌봄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부모	조부모	기타 가족 및 친인척	가사도우미 및 이웃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기타	계
전국	2010	1,015 (48.5)	188 (9.0)	20 (0.9)	25 (1.2)	827 (39.5)	17 (100.0)
	2015	910 (48.3)	130 (6.9)	8 (0.4)	14 (0.8)	798 (42.4)	22 (100.0)
인천	2010	63 (52.9)	11 (9.1)	1 (1.0)	1 (0.5)	42 (35.7)	1 (100.0)
	2015	59 (53.0)	7 (6.7)	1 (0.5)	1 (0.5)	43 (38.2)	1 (100.0)

자료: 각 연도 인구총조사[9][10]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1.2 복합 돌봄

다음으로 다양한 자원의 결합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복합 돌봄을 살펴보자. [표 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복합 돌봄을 구성하는 유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와 돌봄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의 결합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수준에서 부모와 돌봄 시설의 결합 비율은 2010년의 경우 64.4%를 보였고, 2015년에는 65.5%로 나타나 1.1%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천시의 경우 2010년에 부모와 돌봄 시설의 결합 비율이 65.8%로 나타난 이후 2015년에는 66.2%로 나타나 0.4%p의 증가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아동 돌봄 현황을 종합해 보면, 아동 돌봄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일한 자원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모는 다른 어떤 자원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부모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합을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전국 및 인천시 연도별 복합 돌봄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부모 + 유치원, 어린이집 등	부모 + 학원	기타	계	
전국	2010	356(64.4)	5(1.0)	191(34.6)	552(100.0)
	2015	525(65.5)	7(0.9)	270(33.6)	802(100.0)
인천	2010	20(65.8)	0(1.0)	10(33.2)	31(100.0)
	2015	32(66.2)	1(1.1)	16(32.7)	48(100.0)

자료: 각 연도 인구총조사[9][10]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선행연구 검토

모(母)의 경제적 활동에 따라 아동 돌봄 시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아동 돌봄 시간이 더 적음을 제시하는 연구들[1-4]이 있는 한편,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이 길수록 돌봄 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3][5] 또한 존재한다.

아동 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취업모는 아동 돌봄에 대한 만족도나 효능감에서 미취업모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양육 참여와 양육 효능감이 정적인(positive)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11]와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양육 부족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낸다는 결과[6]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모(母)의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일-가족 간의 시간 배분이 제도적 상황[3]과 개인의 경제활동 수준[6][12]과 무관하지 않고,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용 경험이 돌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논의[7]를 고려해 보았을 때,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의 차이는 정책 욕구에 대해서도 상이한 모습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인천의 가족 돌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既) 수집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 자료의 조사 대상자는 3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천시 거주자로 가족 내에 돌봄 대상자가 있는 여성이다. 1차 표본은 거주 지역(구 및 군)과 연령을 고려하여 인구비례할당추출법으로 추출된 20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1차 표본에서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돌보고 있는 아동의 모(母) 292명을 추가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1차 표본에서 분석 대상자를 추출해낸 과정은 [표 4]와 같다.

표 4. 분석대상자 추출 과정

미취학 아동 유무 (n=2,000)	구분(n, %)	
	유	무
	407(20.4)	1,593(79.7)
▼		
아동 돌봄 유무 (n=407)	돌봄	돌보지 않음
	328(80.6)	79(19.4)
▼		
돌봄 아동과의 관계 (n=328)	어머니	292(89.0)
	(외)조모	13(4.0)
	외가 친척(이모, 외숙모 등)	14(4.3)
	친가 친척(고모, 작은어머니 등)	7(2.1)
	기타	2(0.6)

본 연구에서 살피고 있는 아동 돌봄 시간은 돌봄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각 돌봄 유형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 돌봄을 신체적 돌봄(세안 및 목욕, 식사 지원 등), 도구적 돌봄(이동지원, 약복용, 학업지원 등), 정서적 돌봄(대화나누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1일 평균 돌봄 시간과 1주일 평균 돌봄 시간을 각각 조사하였다.

돌봄 만족도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의 응답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과 관련된 정책 욕구는 11가지로 구성하였다<sup>2)</sup>.

1) 본 연구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본과제[13]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설문에서 구성한 11개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유치원

####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고, 아동 돌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은 30-39세가 7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40-49세(19.5%)와 50-59세(0.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대 구성은 2세대가 과반을 차지하는 85.6%의 비율을 보였고, 3세대와 4세대가 각각 13.7%와 0.7%의 비율을 보였고, 거주 지역은 부평구(22.3%), 남동구(21.2%), 서구(16.8%), 남구(11.0%), 연수구(8.9%), 계양구(8.6%), 중구(5.5%), 동구(5.1%), 강화군(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57.2%로 나타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비율은 30.8%이었으며, 휴직 중인 여성의 비율은 12.0%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혼인 상태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이 98.0%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별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혼인 상태에 변화를 경험한 여성은 2.0%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 총소득으로 조사된 연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은 400-599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200-399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35.6%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서 600만 원 이상이 17.8%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199만 원 이하가 3.4%로 그 뒤를 이었다.

비용의 지원 확대, ② 정부의 돌봄서비스 확대, ③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의무화, ④ 아동 돌봄 관련 휴가 확대 및 의무화, ⑤ 교육 및 학습 지원 서비스, ⑥ 가족돌봄휴직제 개선, ⑦ 가정 양육수당 인상, ⑧ 조부모 양육수당 도입, ⑨ 아동 돌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⑩ 남성육아휴직제도 강화, ⑪ 기타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92)

구분		n(%)	구분		n(%)
연령	30-39세	233(79.8)	세대 구성	2세대	250(85.6)
	40-49세	57(19.5)		3세대	40(13.7)
	50-59세	2(0.7)		4세대	2(0.7)
거주 지역	중구	16(5.5)	취업 여부	취업	167(57.2)
	동구	15(5.1)		미취업	90(30.8)
	남구	32(11.0)		휴직중	35(12.0)
	연수구	26(8.9)	혼인 상태	혼인중	286(98.0)
	남동구	62(21.2)		별거,이혼, 사별	6(2.0)
	부평구	65(22.3)	월평균 가구 총소득	199만원 이하	10(3.4)
	계양구	25(8.6)		200-399만원	104(35.6)
	서구	49(16.8)		400-599만원	126(43.2)
강화군	2(0.7)	600만원 이상		52(17.8)	

2. 아동 돌봄 실태

2.1 아동 돌봄 시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돌봄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을 신체적, 도구적, 정서적 돌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돌봄 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돌봄 영역별 아동 돌봄 시간

구분(n=292)	(단위: 시간)	
	1일 평균	1주일 평균
신체적 돌봄(세안, 목욕 등)	5.5	31.8
도구적 돌봄(등·하원 지원 등)	3.4	19.1
정서적 돌봄(대화 나누기)	5.2	30.4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모(母)는 세안이나 목욕과 같은 신체적 돌봄을 위해 하루 평균 5.5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평균 31.8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등·하원 지원과 약 복용 지원과 같은 도구적 돌봄에는 1일 평균 3.4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평균 19.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돌봄에는 1일 평균 5.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주일 평균으로는 30.4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모(母)의 취업 상태별 돌봄 시간

위의 돌봄 시간을 모(母)의 취업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하여 취업 상태를 ‘현재 취업 중’과 ‘미취업 및 휴직 중’으로 재구성하여 각 집단별 돌봄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7] 및 [표 8]과 같다.

먼저, [표 7]을 통해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1일 평균 신체적 돌봄 시간은 약 3.6시간이고 미취업자 및 휴직자의 1일 평균 돌봄 시간은 약 7.9시간이다. 도구적 돌봄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돌봄 시간이 2.2시간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미취업자 및 휴직자는 5.0시간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돌봄은 취업자가 하루 평균 3.3시간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미취업자 및 휴직자는 7.6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모든 영역의 돌봄에서 두 집단(취업자 vs. 미취업자 및 휴직자)은 돌봄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모(母)의 취업 상태 및 돌봄 영역별 돌봄 시간(1일 기준) (단위: 시간)

구분	돌봄 시간		t-value
	취업자	미취업자 및 휴직자	
신체적 돌봄	취업자	3.6	-5.5***
	미취업자 및 휴직자	7.9	
도구적 돌봄	취업자	2.2	-4.2***
	미취업자 및 휴직자	5.0	
정서적 돌봄	취업자	3.3	-5.7***
	미취업자 및 휴직자	7.6	

주. 전체: n=292, 취업자: n=167, 미취업자 및 휴직자: n=125  
\*\*\*p<.001

다음으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돌봄 시간의 집단별 차이는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돌봄의 경우 취업자는 1주일 평균 22.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취업자 및 휴직자는 1주일 평균 약 44.9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돌봄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평균 11.8시간을 투입하였고, 미취업자 및 휴직자는 평균 28.9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돌봄은 취업자가 1주일 평균 21.1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 및 휴직자는 평균 42.7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 돌봄 시간의 차이는 1일 평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돌봄 영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표 8. 모(母)의 취업 상태 및 돌봄 영역별 돌봄 시간(1주일 기준)  
(단위: 시간)

구분	돌봄 시간	t-value
신체적 돌봄	취업자	22.0
	미취업자 및 휴직자	44.9
도구적 돌봄	취업자	11.8
	미취업자 및 휴직자	28.9
정서적 돌봄	취업자	21.1
	미취업자 및 휴직자	42.7

주. 전체: n=292, 취업자: n=167, 미취업자 및 휴직자: n=125  
\*\*\*p<.001

### 2.3 돌봄에 대한 만족도

돌봄 시간의 차이와 함께 이하에서는 각 돌봄 영역별 만족도의 차이를 전체 집단과 취업 상태에 따라 구분된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표 9]는 전체 집단과 집단 구분에 따른 만족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신체적 돌봄과 도구적 돌봄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 1 - 매우 만족: 5)는 약 3.3점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돌봄은 3.2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어서 취업 상태별로 집단을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돌봄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대체로 보통 수준의 돌봄 만족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만족도가 돌봄자의 취업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집단별로 돌봄 시간의 양에서 확인한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각 집단의 모(母)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여 돌봄을 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에 따라 각 집단별로 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욕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9. 돌봄 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전체 평균	집단별 평균	t-value
신체적 돌봄	3.3	취업자	3.2
		미취업자 및 휴직자	3.4
도구적 돌봄	3.3	취업자	3.2
		미취업자 및 휴직자	3.4
정서적 돌봄	3.2	취업자	3.1
		미취업자 및 휴직자	3.2

주. 전체: n=292, 취업자: n=167, 미취업자 및 휴직자: n=125  
\*\*p<.01

### 2.4 아동 돌봄 관련 정책 욕구

이하에서는 취업 상태에 따른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욕구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자.

표 10. 아동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

(단위: %)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및 휴직자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의 지원 확대	46.7	67.2
정부의 돌봄 서비스 확대	37.7	33.6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의무화	49.1	27.2
아동 돌봄 관련 휴가 확대 및 의무화	29.9	19.2
교육 및 학습지원 서비스	19.8	30.4
가족돌봄휴직제 개선	23.4	12.8
가정 양육수당 인상	46.1	67.2
조부모 양육수당 도입	24.0	8.8
아동 돌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12.0	16.8
남성육아휴직제 강화	10.8	14.4
기타	0.6	0.8

주1. 전체: n=292, 취업자: n=167, 미취업자 및 휴직자: n=125  
주2. 중복응답을 허용한 값임

[표 10]은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sup>3)</sup>.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자의 경우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의무화’(49.1%)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모(母)가 취업자인 경우 아동을 돌보는 데 투입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돌봄의 어려움이 취업자인 모의 정책적 필요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취업자 및 휴직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의 지원 확대’와 ‘가정 양육수당 인상’이 동일하게 (67.2%)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성원의 경제활동 부재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 문제가 아동 돌봄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의 욕구를 강화시킴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11]에 제시된 취업자와 미취업자 및 휴직자 간의 가구 소득 분포의 차이는 이와 같은 추론을 가능케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의 지원 확대’(취업자: 46.7%, 미취업

3) 조사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 가지의 필요 지원을 각각 조사하였으나 본 원고에서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자 및 휴직자: 67.2%)와 ‘가정 양육수당 인상’(취업자: 46.1%, 미취업자 및 휴직자: 67.2%)에 대한 욕구는 두 집단에서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아동을 돌보는 자원으로 가장 주되게 활용되는 것이 부모와 돌봄 시설임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11. 가구 소득 분포(취업자 vs. 미취업자 및 휴직자)  
(단위: 명, %)

구분	가구 총소득 구간					계
	199만원 이하	200-399만원 이하	400-599만원 이하	600-799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취업자	6 (3.6)	30 (18.0)	90 (53.9)	21 (12.6)	20 (12.0)	167 (100.0)
미취업자 및 휴직자	4 (3.2)	74 (59.2)	36 (28.8)	9 (7.2)	2 (1.6)	125 (100.0)

위와 같은 결과들과 별도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취업자와 미취업자 및 휴직자 집단 모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의 지원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육비 부담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6]와 맥(脈)을 함께 한다. 그런데 미취업자 및 휴직자 집단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게 표출되었다는 것과 소위 무상보육이 확대·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의 요청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견 비합리적인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하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응답은 합리적인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육시설의 이용이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에서 과거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13]. 또한 돌봄 자원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단일한 돌봄 자원(예를 들어, 부모 또는 보육시설 등)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복합적인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4]. 특히, 돌봄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복합적 돌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 + 유치원, 어린이집 및 놀이방’의 조합임[14]을 고려해 본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모(母)라고 할지라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욕구 또한 함께 가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취업모뿐만 아니라 미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또한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1]를 고려하였을 때, 미취업모 역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욕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12. 주요 도시별 보육료 등 수납 한도액 및 부모 부담 보육료(2017년 기준)

(단위: 천 원)

도시	연령	보육료 수납 한도액	부모 부담 보육료	보육료 차액 지원금	실제 부모 부담 보육료
서울	만3세	303	83	28	55
	만4-5세	288	68	22	46
인천	만3세	294	74	0	74
	만4-5세	280	60	0	60
부산	만3세	293	73	0	73
	만4-5세	278	58	0	58
대구	만3세	285(291)	65(71)	0	65(71)
	만4-5세	269(279)	49(59)	0	49(59)

주1. 대구의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의미함

주2. 인천과 부산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차액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함  
자료: [16-22]

두 번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한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sup>5</sup>. 따라서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금 간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4)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14]에서 2015년 기준 ‘부모+유치원, 어린이집 및 놀이방’ 조합은 복합 보육 중 65.5%를 차지하였다.

5)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된다. 즉,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과 그에 따른 부모 부담 보육료의 존재는 부모에게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12]는 2017년 기준 인천시를 비롯한 주요 4개 도시의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수준을 보여준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각 도시의 보육료 등 수납 한도액은 서울이 만 3세 303천 원, 만 4-5세 288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대구가 만 3세 285천 원, 만 4-5세 269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인천은 만 3세 294천 원, 만 4-5세 280천 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갖는다. 2017년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가 220천 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의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된다. 이러한 경우 일견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이 가장 높은 서울의 부모 부담 보육료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나, 서울의 경우 보육료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육료는 4개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12 참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은 4개 도시 중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이 두 번째로 높은 도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4개 도시 중 부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가 만 3세의 경우 74천 원, 만 4-5세의 경우 60천 원으로 4개 도시 중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천의 보육 환경과 정책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천의 모(母)들이 갖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욕구는 자신들의 환경을 평가하고 결정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을 직접 돌보는 인천시 모(母)들의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의 여성은 자신의 아동을 돌보는 데 하루 평균 3.4-5.5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 기준으로는 19.1-31.8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모(母)의 취업 상태에 따른 돌봄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업자의 돌봄 시간이 미취업자 및 휴직자의 돌봄 시간보다 적은 모습을 보였다. 돌봄의 만족도 역시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신체적 돌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취업자 및 휴직자의 돌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차이에 따라 아동 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욕구 역시 돌봄자의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자인 모(母)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의무화’와 같은 직접 돌봄의 시간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선호한 반면에 미취업자 및 휴직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의 지원 확대’, ‘가정 양육수당 인상’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여성 돌봄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생각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의 지원 확대’에 대해 취업모(46.7%)뿐만 아니라 미취업모 및 휴직모(67.2%) 역시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위 무상 보육이라고 하는 보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교육 및 보육비가 평균 22만 8천 원6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23], 양육비와 취업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가 정적인(positive) 관계를 가지며[24] 인천시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보이는 도시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합리적인 욕구의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접근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인천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가 비교 가능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생각해 본다

6) 교육 및 보육비용 지출이 없는 사례를 포함한 평균액은 16만 9천원 수준이다[23].



면, 해당 보육료의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살펴볼 가치가 있으며, 인천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역시 그 조건을 현재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서 첫째 또는 둘째 이상의 자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2018년 1월부터 민간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8]. 이 역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해소시켰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의한 돌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강건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그 형태와 밀도가 과거와 달리 변하고 열린 모습도 보이지만, 가족에 의한 돌봄이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가족의 형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개인과 가족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제도의 인지와 이해를 달리 할 수 있고,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는 정책 욕구의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과 욕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본과제 '인천시 여성의 가족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17)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연구 내의 결과와 의견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무관합니다.

## 참 고 문 헌

- [1] 현재은, 권혁주,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1호, pp.269-293, 2013.
- [2]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pp.367-400, 2014.
- [3] 현재은, “보육정책 변화와 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1호, pp.207-231, 2014.
- [4] 권순범, 진미정,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 단독주행동,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을 기준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pp.27-43, 2016.
- [5] 김소영, 진미정,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5호, pp.1-19, 2016.
- [6] 황혜경, 정미미, “강원도 보육시설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용실태, 만족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3권, pp.199-218, 2008.
- [7] 목진휴, 안미영, 김병준, “아동 돌봄 정책의 기대와 만족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2호, pp.207-231, 2013.
- [8] <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11347>, 2018.03.14.
- [9]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연령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12세 이하)-시도,” 2017년 5월 20일 추출, <http://kosis.kr>, 2011.
- [10]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연령별 보육상태별 아동인구(12세 이하, 일반가구)-시도,” 2017년 5월 30일 추출, <http://kosis.kr>, 2017.
- [11] 권정운,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7권, pp.179-201, 2013.

[12] 전상민,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만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77-101, 2011.

[13] 이경선, 김주후,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pp.464-473, 2009.

[14] 권미애, 하석철, 김제희, 인천시 가족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2017.

[1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 2018.3.15.

[16] [http://woman.seoul.go.kr/archives/14913?tr\\_code=sweb](http://woman.seoul.go.kr/archives/14913?tr_code=sweb), 2018.3.6.

[17]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2018년 3월 6일 추출, [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88945&tr\\_code=sweb](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88945&tr_code=sweb), 2017.

[18] <http://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ic/&sno=24481&gosiGbn=A>, 2018.3.6.

[19] 인천시, “다자녀가정 희소식, 부모부담 보육료 걱정 줄어든다,” 인천시 2017년 7월 17일자 보도 자료, <http://press.incheon.go.kr/citynet/jsp/sap/SAPNews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Svp&sid=ic&matOfYmd=20170717&matSno=11&flag=in>, 2017.

[20] <http://news.busan.go.kr/snsbusan04/view?dataNo=49497>, 2016.1.1.

[21] <https://busan.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38948>, 2018.3.15.

[22] <http://sid.daeg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sno=21741&gosiGbn=A>, 2018.3.14.

[23] 최효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실태,” 육아정책포럼, 제50호, pp.16-27, 2016.

[24] 임중호,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132-143, 2014.

저 자 소 개

하 석 철(Seok Cheol Ha)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2월 ~ 2018년 2월 : 인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2018년 2월 ~ 현재 : 인천고령 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관심분야> :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세대 간 관계